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전략로켓군 화력타격임무수행과 관련한 작전회의를 긴급소집하시고 화력타격계획을 최종검토, 비준하시였다

우리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나라의 최고리익을 침해하는 미제의 반공화국침략책동은 엄중한 단계에 들어섰다.

미제는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전략폭격기 《B-52》를 편이여 남조선지역 상공에 들이민것으로 성차지 않아 3월 28일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본토 미주리주 와이트맨공군기지에 있는 스텔스전략폭격기 《B-2A》를 비롯한 전략타격수단들을 새롭게 남조선지역 상공에 진입시켜 우리를 겨냥한 지상목표타격훈련을 공공연히 벌리는 위협천만한 도발행위를 감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이것은 지난 3월 26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하여 발표된 우리 혁명무장력의 의미심장한 경고를 귀등으로 듣고 우리와 끝까지 대결해보려는 미제의 강도적인 침략야망이 극도에 달하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조성된 험악한 사태와 관련하여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최고사령부에서 3월 29일 0시 30분 조선인민군 전략로켓군 화력타격임무수행과 관련한 작전회의를 긴급소집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날 최고사령부 작전회의에서 먼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겸 정찰총국장 김영철 육군대장으로부터 미제침략군 핵타격수단들의 행동성격에 대한 적정조회보고를



받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어 전략로켓군사령관 김락겸육군중장으로부러 아군전략타격수단들의 기술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중대한 결심을 내리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성된 정세를 놓고볼 때 미제와 총결산할 때가 도래하였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인정하시였다.

미제가 방대한 전략무력을 끌어들이며 무모한 불질을 한다면 그 아성인 미국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전구안의 미제침략군기지들, 남조선주둔 미군기지들을 사정없이 타격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략로켓군의 화력타격계획을 검토하시고 최종비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미제가 남조선 상공에 편이여 스텔스전략폭격기 《B-2A》까지 발진시킨것은 미제의 반공화국적대행위가 단순한 위협공갈단계를 넘어 무모한 행동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다시금 보여주었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미제의 스텔스 전략폭격기 《B-2A》가 남조선지역 상공에 날아든것은 단순히 우리의 강경립

장에 대응한 무력시위가 아니라 조선반도에서 기여이 핵전쟁을 일으켰다는 최후통첩이라고 하시면서 미제가 핵으로 우리를 위협공갈하는 시대를 영원히 끝장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은 미제의 핵공갈에는 무자비한 핵공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아군전략로켓들이 임의의 시각에 미국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전구안의 미제침략군기지들, 남조선주둔 미군기지들을 타격할수 있게 사격대기상태에 들어갈것을 지시하시면서 전략로켓들의 기술준비공정계획서에 최종수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적들이 우리의 자제력을 시험하면서 끝끝내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있다고 하시면서 이제 더는 참을수 없다고, 명령만 내리면 첫 타격으로 모든것을 날려보내고 씨도 없이 재가루로 불태워버리라고 단호히 말씀하시였다.

정의의 위업을 위해 일떠선 인민을 막을자 이 세상에 없다는것은 역사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라고 하시면서 미제의 용납 못할 추태의 후과로 이 땅에서 또다시 바라지 않는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전쟁에서 미제는 수치스러운 파멸을 맞을것이며 위대한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찬연한 새날을 맞이하게 될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제324대련합부대, 제287대련합부대, 조선인민군 해군 제597련합부대의 상륙 및 반상륙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적들의 무모한 침략도발책동으로 하여 정세가 전쟁집경으로 치닫고있는 속에서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3월 25일 조선인민군 제324대련합부대, 제287대련합부대, 조선인민군 해군 제597련합부대의 상륙 및 반상륙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불의에 훈련명령을 내리시고 전선동부와 동해안에 위치한 조선인민군 육군 대련합부대들, 조선인민군 해군 련합부대의 상륙 및 반상륙훈련을 최종검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가파로운 산고지를 오르시여 감시소에 이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훈련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훈련을 진행할데 대한 명령을 주시였다.

먼저 《적》상륙집단을 해상에서 타격소멸하는 훈련이 진행되였다.

있게 과시하며 방사포일제사격이 시작되였다.

하늘땅을 뒤흔드는 폭음과 함께 열적의 포신들이 동체를 떨며 시뻘건 불줄기를 연해연방 내뿜었다.

수평선 멀리에서 삼단같은 물기둥이 솟구쳐 뿜쳐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정말 잘한다고, 적의 상륙기도에 맞게 타격시기를 바로 정하고 격과들이 제일 높을 때 《적》함선집단에 대한 집중포화력을 들이쳤다고 하시며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련합부대들이 협동작전으로 《적》상륙집단에 연속강타를 들이대는것을 보시고 잘하오, 잘해, 저렇게 타격하면 적들을 해상에서 모조리 수장해버릴수 있다고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적상륙집단이 우리의 해안에 절대로 달라붙지 못하도록 강력한 포화력으로 해상에서 철저히 쓸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에서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본때를 보여주어 불맛은 승냥이처럼 미쳐날뛰는 원수들을 한눈도 살려두지 말고 모조리 바다속에 처넣으라고 말씀하시였다.

이후 조선인민군 해군 제597련합부대의 상륙전투행동이 시작되였다.

저 멀리 수평선너머에서 불시에 나타난 고속함정들이 해안으로 편이여 벼락같이 돌입하였다.

해안에 등륙한 일당백전투원들이 평시에 편마한 전투동작으로 《적》진을 향해 비호같이 달려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투원들이 《적》진을 단숨에 타고앉는 모습을 생안경으로 보시며 펄펄 난다고, 아마 훈련이 아니라 실전이면 적들이 미처 정신을 차릴새 없을것이라고 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앞서 진행된 《적》상륙집단에 대한 포병화력타격에 동원되였던 조선인민군 제324대련합부대관하 박중심소속중대 1소대 3포녀성군인들을 부르시여 자신의 곁에 화

력진지를 직접 정해주시고 불의에 목표를 지적하시며 소멸할데 대한 명령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들을 시찰하면서 불의에 정황을 주군 하는데 그것은 오늘의 훈련이 레일의 싸움과 직결되어있기때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군인들은 언제 어떤 정황이 조성되여도 즉시에 전투에 진입하여 적을 소멸할수 있게 준비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훈련에서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을 받은 녀성방사포병들은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정해주신 화력진지를 신속히 차지하고 원수님께서 지적해주신 목표를 정확히 명중소멸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동지! 제1소대 3포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정해주신 목표를 단번에 명중하여 소멸하였습니다.》는 자랑찬 승리의 보고가 하늘가에 울려 퍼졌다.

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장해, 명포수들이요, 불의에 훈련계획에도 없던 목표를 지적해주고 소멸할데 대한 화력임무를 주었는데 임무를 잘 수행했소라고 치하시며 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격정에 겨워 눈물을 흘리는 녀성방사포병들을 미덥게 바라보신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조선녀성들이 얼마나 장한가, 일당백으로 준비된 녀성방사포병은 핵탄에도 비교할수 없다고 하시며 앞으로 앞지 말고 모두 건강하여 훈련을 더 잘하라고, 평시에 일당백명포수운동을 힘있게 벌려 원수들과의 관가리결전에서 적함선들을 무테기로 바다물속에 수장해버리고 꼭 영웅포병이 되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혁명적신념과 배양의 최고화신이신 회세의 천출명장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닮은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무적필승의 기상을 만천하에 펼친 훈련은 성과적으로 끝났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1973군부대와 군부대관하 2대대, 조선인민군 제1501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3월 22일 오중흥7련 대징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제1973군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군부대 지휘부에 도착하시자 군인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정력적인 선군혁명명도로 적들과의 전면대결전에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의 환길로 이끌어주시는 강철의 령장 김정은원수님께 열화같은 흠모의 마음을 담아 최대의 경의를 드리며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군인들에게 손을 저어 답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군부대 직속구분대에 쌓안경과 자동보총, 기관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군인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휘관들로부터 2003년 5월 23일 이곳 부대를 찾으셨던 아버지장군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같이 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현지지도사적비에 대한 해설을 들으신 다음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군인회관, 도서실, 영웅교양장소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군사강실에 만들어놓은 적지역지형사판과 부대작전계획을 보시면서 군부대장으로

부터 부대의 작전전투임무수행과 훈련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청취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부대앞에는 적들의 아성을 타고앉아야 할 중요한 임무가 맡겨져있다고 하시면서 일단 싸움이 터지면 적들의 심장부에 벼락같이 돌입하여 말은 군사대상물들과 파괴반동통치기관들을 불이 번쩍 나게 타격소멸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부대가 주요라격대상을 바로 정하고 중요대상물들을 빠짐없이 장악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날 군부대 직속구분대를 돌아보시며 군인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군부대장병들이 적들과의 관가리결전에서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본매를 보이고 귀중한 사회주의조국을 철옹성같이 사수하리라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3월 23일 오중흥7련 대징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제1973군부대관하 2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쫓겨난 행복에 겨워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군인들에게 따뜻한 달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2대대 1중대에 쌓안경과 자동보총, 기관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장병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

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옮기시던 걸음을 거듭 멈추시고 군인들에게 오래도록 손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1974년 2월 8일, 아버지장군님께서 2000년 4월 9일 이곳 대대를 찾으셨던 력사의 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한 현지지도사적비에 대한 해설을 들으신 다음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군사강실에서 대대가 맡고있는 전투임무와 전투동원준비정형, 훈련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였다.

원수님께서 대대에서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인 군사전법과 전투행동방식, 전투조법들을 깊이 연구하고 실전에 구현하기 위한 훈련을 실속있게 벌려 지휘관, 참모부 일군들, 군인들을 그 어떤 어려운 전투임무도 능숙히 자립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준비시키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전투방안을 주의깊게 보아주신 원수님께서 사수가 자기 무기에 정통해야 명중탄을 날릴수 있는것처럼 모든 전투원들이 자기들이 타격소멸해야 할 적들의 군사대상물들과 파괴반동통치기관들을 손금보듯이 꿰고 그 특성을 잘 알고있어야 일단 유사사적의 아성에 번개같이 돌입하여 적들의 심장부에 멸적의 비수를 단번에 정확히 쫓을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대의 룡창고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도서실과 오중흥정치대학강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대관하 김순영영웅중대의 교양실, 침실, 취사장을 비롯한 문화교양 및 후방시설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어 대대군인들의 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군인들의 용맹스러운 훈련모습을 보시고 군인들이 군사기술적으로, 육체적으로 억척같이 준비된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훈련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력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날 불의에 대대지휘관들의 권총, 자동보총사격훈련을 조직하시고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군사과학기독교양소에서도 각종 사격방법과 관련한 룡화물을 잘 만들어 전군에 내려보내주어 주체적인 전투사격방법을 통일시킬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630대련합부대의 전체 장병들이 철고도에서도 조선로동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사상과 신념을 간직하고 원수격멸의 그날 조국통일대전에서 결사대, 척후대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3월 24일 조선인민군 제1501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군부대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많은 성과들을 이룩한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군부대에서 자체로 연구제작한 첨단전투기술기재들을 보아주시였다.

전투기술기재들의 성능과 도입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으신 원수님께서 쫓겨난 행복을 위해 머리를 쓰고 열정을 바침으로써 싸움준비에 철저히 필요한 현대적인 기재들을 만들었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훈련장에서 전투기술기재들을 기동시켜보시고 성능을 료해하시면서 기재들을 실전배비하여 적들을 불이 번쩍 나게 족칠수 있는 기묘하고 령활한 작전전술방안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군부대군인들이 제작한 공원용놀이기재들도 보아주시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한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군부대장병들이 적들의 침략행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맡겨진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있는데 대하여 거듭 높이 평가하시면서 조선로동당의 선군정치를 받드는 데서 기수, 돌격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인민군대 여러 부문 사업을 지도하시고 식당배 《대동강》호를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3월 24일 인민군대 여러 부문 사업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먼저 인민군대에서 제작한 문화기재들을 보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손풍금과 기타, 장고, 북, 피아노 등을 일일이 보시면서 문화기재들의 질을 가늠해보시기 위해 전문예술인들이 기재들을 리용해보게 하시고 그들의 의견도 들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전시할 사적물들과 사적자료들, 모형들을 보아주시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서한을 비롯한 여러 사적물들과 사적자료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며 력사주

의적원칙에서 고증을 잘하여 발굴사업을 더욱 심화시킬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과 강산혁명학원 원아들에게 새로 입힐 외투견본을 보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제작한 외투를 입고있는 원아들에게 어느것이 더 마음에 드는가, 추운 겨울에 외투가 더 럽을 달면 더 좋지 않겠는가를 물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외투기를 제긴 형태로 만든것이 좋다는 원아들의 말을 웃음속에 들어주시면서 원아들의 요구대로 제긴것으로 만들어주고 럽도 달아주라고 하시며 파괴착용규정을 개정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협주단에서 준비하고있는 음악무용종합공연 《백두산총대로 최후승리 떨지리》에 대한 검열공연을 지도하시였다.

공연무대에는 혼성합창 《최고사령관

기 날리며 승리를 떨치리》, 《조선의 힘》, 녀성저음독창과 방창 《전선길에 눈이 내리네》, 남성5중창 《인생의 영광》, 무용 《우리의 총대》, 혼성2중창과 혼성합창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가야금병창과 남성방창 《우리네 위성이 하늘에 났소》, 혼성합창 《친군한 우리의 최고사령관》, 손풍금과 타프름 《군항의 저녁》, 노래런곡 《훈련 또 훈련》, 《우리의 명사수중대 돌아온다》, 《루타르 풍공경이라오》, 《중대는 정든 고향집》, 《병사의 언제나 곧바로 간다네》, 《병사들이 제일 기뻐해》, 무용3중창과 혼성합창 《나는 영원히 고대의 아들》, 무용 《최후의 결전》, 남성고음독창 《병사의 녀원은 남해바다가에》, 혼성합창과 타프름 《진군 또 진군》, 혼성합창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의 종목들이 울렸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검열공

연을 보신 다음 조선인민군협주단의 예술창작과 창조활동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인민군협주단에 대한 당의 기대는 참으로 크다고 하시면서 인민군협주단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합심하여 예술창작과 창조, 공연활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을 조선로동당의 선군혁명위업수행에 힘있게 불리일으키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3월 24일 인민군대에서 새로 건조하고있는 식당배 《대동강》호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동강》호의 외부와 내부를 돌아보시며 군인들이 조선로동당의 인민사랑의 정책을 높이 받들고 짧은 기간에 현대적인 식당배

를 건조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선갑판과 그 둘레에 설치한 난간을 유심히 보시면서 손님들이 갑판에서 경치를 구경하는데 지장이 없는가를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식사실들을 돌아보시면서는 마감건축을 어떤것을 쓰는가에 따라 건축물의 질이 달라지는것처럼 《대동강》호건조에서도 좋은 건재를 써야 훌륭한 배를 만들수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식당전용배에 비치할 가구들을 어디에서 제작하는가도 알아보시고 손님들이 리용하기에도 편리하고 보기에 좋은 고급가구들을 비치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식당배 《대동강》호건조사업을 뜻깊은 래양절까지 무조건 끝낼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주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지도 밑에 전군선전일군회의가 진행되였다

은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서고있는 전쟁전야의 준엄한 정세속에서 3월 28일 전군선전일군회의가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몸소 전군선전일군회의에 참석하시여 회의를 지도하시였다.

회의에는 군종, 군단 정치위원들,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방공공군, 전략로케트군, 각급 군사학교를 비롯한 인민군대안의 선전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오전 8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군선전일군회의를 지도하시기 위하여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악랄한 원수들의 침략도발책동으로부터 귀중한 사회주의조

국을 수호하시기 위하여 불철주야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는 그 바쁘신속에서도 전군선전일군회의를 지도하시기 위해 천금같은 혁명시간을 내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며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회의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최룡해 조선인민군 차수가 보고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인민군 제966대련합부대 정치일군 박영식, 제337대련합부대관하 구분대 선전일군 조성호, 제630대련합부대 선전일군 리창일, 항공 및 방공공군관하 부대 정치일군 유림호, 인민군방송부 일군 송청송, 월내도방어대 선전일군 임익찬이 토론하였다.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군의 총대로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때에 전군선전일군회의가 열린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군대에서는 모든 사상사업을 싸우는 군대맛이 나게 화선식으로 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선전일군들은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불타는 고지와 전후속에서 총정의 맹세를 다지고 최후결전에 떨쳐나서도록 전투원들을 힘있게 불리일으켰던 화선정치사업의 본매대로 사상사업을 격식과 틀이 없이 전투적으로 벌려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반세기이상 지속되어온 미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전을 종결산해야 하는 오늘 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되고 전쟁의 도화선에 불이 달린 정세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에서는 모든 사상사업을 전쟁점경으로 접근시키는데서 나

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상중시는 혁명무력건설의 일반한 로선이며 사상과 신념이 만장약된 총대는 언제나 필승불패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안의 모든 선전일군들이 시때와 혁명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조선로동당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리라는 크나큰 믿음을 표시하시였다.

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회의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3월 28일 전군선전일군회의에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대응의지를 실제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과시할 것이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

우리 군대와 인민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겨냥한 미국의 핵전쟁소동은 위협계선을 넘어 실천단계에서 벌어지고있다.

3월 25일에도 미국은 아침 8시경 판도 앤더슨공군기지에 전개되어있는 핵전략폭격기 《B-52》편대를 남조선지역 상공에 불시에 들이밀어 11시 50분경부터는 공화국북반부의 중심대상물들을 가성한 실전핵타격연습을 강도높게 벌리면서 그것을 알라는듯이 내놓고 공개하였다.

때를 같이하여 남조선의 보수언론들까지 내세워 2010년에 있었던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한 살해작전과정을 소개하면서 저들이 작성한 《한미연합군》작전계획에는 미제침략군과 남조선피뢰군이 보유하고있는 살인타격수단과 방법으로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해치기 위한 악랄한 작전계획까지 포함되어있다고 뼈저리게 지적하였다.

이러한 우리의 최고존엄을 해치기 위한 작전은 군사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며 이 시각도 관련된 우리의 모든 행동을 정밀감시하고있다고 하면서 지금은 《수세적인 대북정책》이 아니라 《공세적인 대북정책》을 펴 때라고 चे저했다.

현 피뢰당국자들도 리명박역도처럼 《천안》호침몰사건을 또다시 우리와 억지로 연계시키고 언병도 포격전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같은 성격의 《국지도발》이 재발된다면 평양을 비롯한 공화국북반부의 이르는 곳마다에 모셔져있는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미싸일로 정밀타격할것을 계획하고있다고 함부로 고아했다.

그러면서 이미 그 위치와 크기,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한 《제거우선순위목록》까지 만들어놓았다고 하늘무서운줄도 모르고 자어대고있다.

이 모든 움직임은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와 지하핵시험을 기화로 벌어지고있는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을 비롯한 온갖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적대행위가 단순한 위협공갈단계를 넘어 무모한 행동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었고있다.

사태의 엄중성은 이러한 무모한 준동이 미국에 의하여 고안된 대조선 《제재결의》가 온갖 적대세력들과의 공모협력속에 강도높은 행동으로 옮겨지고있는데서 그 때를 같이하고있다는데 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조성된 현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최종결심을 내외에 천명한다.

1.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대응의지를 실제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과시하게 될것이다.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다.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존엄이 여지없이 침해당하고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이 실천행동으로 번져지고있는 협박한 현실을 더이상 묵과할수 없다는것이 우리가 찾는 명명백백한 결론이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지금 이 시각부터 미국본토와 하와이, 판도를 비롯한 태평양군작전전구안의 미제침략군기지와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의 모든 적대상물들을 타격하게 된 전략로켓군부대들과 장거리포병부대들을 포함한 모든 야전포병군집단들을 1호전투군부대에 진입시키게 된다.

2. 상전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동조하여 춤추는 남조선의 현 괴뢰당국자들에게도 우리 군대의 초강경의지를 물리적으로 보여주게 될것이다.

그 무는 《원점》타격과 《지원세력》, 《지휘세력》에 대한 응징의 기회라는것을 찾을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망상은 없을것이다.

첫 순간타격에 모든것이 날아나고 씨도 없이 재가루로 불라버리게 된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북남관계를 과격하게 몰아넣고 평화변영의 길을 5년이나 가로막은 전 집권자의 매국배족행위가 현 집권자에 의해 그대로 지속되는것을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물지 않는 립장이다.

3.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 진보적인류에게 날강도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반대하는 투쟁에 관결같이 펼쳐나실것을 호소한다.

나라가 크고 군사력이 우세하다고 하여 저지르는 불의가 정의로 되는것은 결코 아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결의도 공정성을 잃으면 그것은 벌써 불의의 길로 떨어지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국제적인 범죄로 된다.

불의는 일시이며 거지는 불길이다.

그러나 정의는 영원하며 타오르는 불길이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세계의 령심앞에 미국의 강권과 전횡, 공정성을 잃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결의》에 맹종할것이 아니라 자주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에 적극 합세해나실것을 호소한다.

승리는 자주권수호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진보적인류에게 있다.

주제 102 (2013) 년 3월 26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자주적인민의 선언

얼마전에 발표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은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공화국군대와 인민의 분노와 멸적의 의지를 더욱 높여주고있다.

전략로켓군부대들과 장거리포병부대들을 포함한 모든 야전포병군집단들이 1호전투군부대에 진입할것을 비롯하여 온 나라의 전체 군대와 인민이 명령만 내리면 단숨에 달려나가 적대세력을 무찌르고 조국통일대전의 최후승리를 안아올 기세에 넘쳐있다.

내외전세력과 반동일세력을 쓸어버릴 정의 조국통일대전의 시각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적대세력과 말로 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 이제는 총대가 최후의 결산을 할것이다.

한다면 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것은 선군조선의 본매이고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되고있다.

지난 세기 50년대에 있는 반미대전만 봐도 그렇다. 당시 조선전쟁을 도발한 미국은 북조선의 운명이 《72시간내에 결판》 난다고 호언장담했다. 세계의 선량한 사람들은 조선의 운명을 두고 우려했다.

하지만 공화국은 조금도 끄떡하지 않았다. 강철의 령장이시고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단호하게 언명하셨다.

조선사람을 몰라보고 덤비는 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적들의 야만적인 침략전쟁에 정의의 해방전쟁으로 대답해야 한다. 그이의 선언은 빈말이 아니었다.

전략세력은 전쟁개시 3일만에 서울을 잃었고 패전을 거듭한 끝에 3년만에는 드디어 회기를 들었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자기의 자주적존엄과 정의를 유린하는 외세의 침략과 간섭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치 않는 공화국의 건결한 반제자주정신과 불굴의 기상이 창조한 세계전쟁사에서 류례없는 군사적기적이고 전승신화였다.

전후에도 조선반도를 세계제패실현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미국의 집요하고 횡포한 간섭과 전횡, 압력책동으로 이 땅에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조성된적은 한두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공화국은 빈말이 아니라 무자비한 징벌과 초강경대응으로 적대세력을 제압했다.

지난 세기 60년대에 있는 미국 부장간첩선 《푸에블로》호나포사건때도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오만방자하게 놀아대는 미국의 무분별한 압살책동을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라는 추상같은 선언으로 적대세력의 기를 꺾어버리고 사회

와 굴복을 받아낸 공화국이다.

《EC-121》대형간첩비행기격추사건도 미제침략자들이 지난 조국해방전쟁과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때와는 살아서 항복시라도 쓸수 있었지만 이번엔 무분별하게 달려들면 불을 즐기는 부나비의 신세가 되게 만들어놓아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단호한 결심과 배짱, 선군으로 마련된 강력한 권력에 의해 공화국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승냥이가 양으로 될수 없듯이 침략과 전쟁, 지배를 생리로 하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침략야망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우리 민족에게 피뎠던 한을 남기고도 모자라 오늘날에는 공화국의 자주권과 최고존엄을 마구 침해하며 핵위협과 공갈을 실천행동으로 이어가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극악무도한 만행에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며 원수적멸의 총탄과 포탄을 만장약하고있다.

모든것을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지금껏 다지고다져온 선군의 위력을 총폭발시켜 세기를 이어 지속되는 긴장격화의 악순환을 끝장내고 통일되고 평화로우며 끝없이 강성변영하는 통일조국을 일떠세우려는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지금 이 시각에도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는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사찰을 이어가시며 정의의 반미대결전을 승리로 이끌고계신다. 이제는 말로 하던 때는 지났다. 이제 당장이라도 싸움이 벌어지면 원수들을 사정을 보지 말고 짓이겨버리라.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모조리 쓸어버리라! 백두령상의 이 추상같은 멸적의 선언에 화답하여 전 전선의 총검마다 서리받치고있다.

한호석재미동포는 《오늘 북은 통일대전준비태세를 완료하고 최고사령관의 총공격명령을 대기하고있다.》고 했으며 남조선 인터넷신문 《자주민보》는 《김정은제1위원장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지휘하게 될 조국통일대전은 제국주의침략에 맞서 북을 지키는 방어전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아성을 최후의 무력공세로 제거하는 공격전일것》이라고 전했다.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 리천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미관계의 령사적사실을 살펴보면 미국은 항상 패했다고 했다.

반미대결전에서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 얻을것은 조국통일이며 잃을것은 군사분계선뿐이다. 이는 위대한 평양을 모신 자주적인민의 정의와 승리의 선언이다.

본사기자 리 설

3월은 봄이라지만 올해 조선반도의 3월은 차디찬 랭기가 감돌아왔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의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행동으로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극도의 위험이 조성되었다. 3월 1일부터 시작된 합동군사연습은 그 규모와 내용, 기간에 있어서 지난 시기의 연습들보다 훨씬 더 위험천만한 북침전쟁공격연습이고 핵시범전쟁이다.

바로 그러한 나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는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하고있는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방어대, 서부전선의 월대방어대대를 려णी어 사찰하고 적들이 우리의 령해, 령토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떨어지면 호되게 답시고 다시는 움직이지 못하게 적진을 아예 철수해버리라고, 적들이 에 밀린 수역에서 우리를 또다시 조공이라도 건드리는 망동질을 해낸다면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전전선에서 정의 조국통일대결군을 개시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겠다고 단호히 선언하시었다.

원수님의 그 명령은 그 어떤 강적이 달려들어도, 그 어떤 준엄한 정세가 조성되어도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끝까지 수호하며 정의 조국통일성전, 전면대결전에서 거어 이 승리를 이룩할 불굴의 의지와 기상을 보여준 3월의 봄우리와도 같은것이였다.

조선서해의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 섬방어대들에 대한 사찰에 이어 원수님께서는 대원수님께서는 언제 터지는 열점지역 포병부대들의 실천능력관정을 위한 실탄사격훈련도 지도하시었다. 적대상물들로 가성한 목표들에 집중적인 명중포탄을 안기는 훈련과정을 지켜보시며 만족한 웃음을 지으시는 그이의 모습은 적대세력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들에게는 힘과 용기, 승리에 대한 굳은 확신을 안겨주었다.

제 당장이라도 싸움이 벌어지면 원수들을 사정을 보지 말고 짓이겨버리라.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모조리 쓸어버리라고 단호히 말씀하시었다.

불을 즐기는 전쟁광자들을 단호히 요정내고 조국통일의 령사적업무를 반드시 성취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어머니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을 다 바쳐 지켜주시고 빛내여주시는 사회주의조국의 신성한 령토에 무분별한 전쟁연습소동의 불씨가 단 한점이라도 떨어지는것을 절대로 허용할수 없는 것이이시기에 가장 위험한 열점지역에서 최고사령부의 작전적 구상을 펼쳐시며 군대와 인민의 전면대결전을 승리로 이끌고계신다.

공화국의 푸른 하늘을 침략의 불구름으로 뒤덮으려는 적대세력들의 머리에 멸적의 철추를 내린 3월의 퇴성이 최후승리의 퇴성, 조국통일환회의 축포성으로 높이 울릴 그날은 멀지 않았다.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대응의지를 실제적인 군사적행동으로 과시할것이라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은 이 땅에서 침략세력들을 단호히 요정내고 조국통일대전의 최후승리를 안아오려는 멸적의 선언, 최후승리의 선언이다.

3월의 퇴성

본사기자 리 경철



도발자, 침략자들의 소굴들을 흔적도 없이 모조리 초토화해버릴 멸적의 의지 차넘친다.

우리의 최고존엄을 감히 건드린자들을 반드시 징벌할것이다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대변인 성명

피뢰 《조선일보》 3월 25일부에 의하면 피뢰군부장대들이 평양을 비롯한 공화국의 대도시들에 정중히 모신 우리의 최고존엄의 상징인 수령영생, 수령청송의 기념비들을 미싸일로 정밀타격할 계획을 짜놓았다고 한다.

악독한 피뢰군부장대들은 이러한 파괴계획이 북주민들에게 엄청난 심리적충격을 줄수 있다고 쟁치면서 위성사진 등을 통해 정밀분석한데 따라 이른바 《제거우선순위목록》까지 작성해놓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피뢰정부관계자도 피뢰군이 《동상을 공격대, 지대미싸일로 타격하는 방안을 마련한것으로 안다.》고 실외하였다.

이 얼마나 천벌을 받을 악귀들의 천인공노할 흉계인가.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의 최고존엄을 감히 해치려는 피뢰적대파당의 극악무도한 범죄행동에 분노의 치를 떨며 복수의 피를 끓이고있다.

력대 피뢰적대파당과 동족대결에 환장하지 않은자가 없었지만 현 피뢰군부장대들처럼 무지막직한 대결광신자들은 찾아볼수 없었다.

도발에 미친 감관전념을 비롯한 천미군부장대들이 청와대에 몰려들어 때를 만난듯이 반공화국대결에 광분하며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아보려고 퍼논이 되어 날치고있다.

천벌을 맞을 피뢰군부장대들의 극악한 대결망상은 청와대안방에서 풍겨내는 독기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드러난 모든 진상은 남조선의 새 《정권》이 리명박역적대파당과 다름없이 동족대결의 길에 나서고있다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지금 피뢰적대파당들은 하늘무서운줄 모르고 날뛰고있다.

우리 민족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은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조국의 해방과 민족의 번영,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위인이시며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가장 정중히 모시고 우러르며 영원한 태양의 모습에서 무한대한 힘과 용기를 받아안고있다.

세계 수많은 나라 사람들과 남조선 각계층

은 물론 적대국가의 인사들도 평양을 방문하면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동상부터 찾아 숭고한 경의를 삼가드리고있다.

천만군민의 열화같은 흠모와 순결한 충정의 결정체인 선군조선의 국보를 감히 어찌보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 세계 진보적인류의 심장에 칼질을 해대는 통지처럼 반인륜적대역죄이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최고존엄을 해치려던 《동가모사건》이 들끓었을 때 피뢰적대파당을 반드시 징벌할것이라는것을 선포하였다.

북침핵전쟁도발사동으로도 모자라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해치려는 천미보수역적대파

을 모조리 불도가니에 쓸어넣으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멸적의 기상은 용암처럼 끓어번지고있다.

우리는 천하무도한 피뢰적대파에게서 사죄따위는 바라지도 않는다.

오직 복수의 불벼락으로 최악의 무리들을 쓸어버림으로써 사회문예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만들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미 선포한대로 온갖 악의 분거지인 청와대를 비롯한 대결모략의 소굴들을 흔적도 없이 짓밟아버릴것이다. 우리의 최고존엄을 감히 건드린자들은 더는 살아숨쉬지 못하게 될것이다.

주제102(2013)년 3월 26일 평 양



침략자들과의 전민항쟁의 최후결사전에서 승리를 이룩할 결의에 충만되어있는 평양시군민대회 참가자들

더는 살아숨쉬지 못하게

분노의 피가 끓는다. 우리 공화국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모독해나선 인간쓰레기들을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숨쉬게 할수 있단 말인가. 천만군민의 열화같은 흠모와 순결한 충정의 결정체인 선군조선의 국보를 감히 어찌보려고 날치는 천미사대매국도들을 씨도 없이 몽땅 통지처럼 반인륜적대역죄를 저지른 자들은 살아 숨쉬지 못하게 하라!

이제는 말로 할 때가 지났다. 이제 더는 참을수 없다. 하늘무서운줄 모르고 날뛰는 남조선군부장대들에게 우리 공화국이 다시고다져 온 선군의 위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똑똑히 보여줄 때는 왔다. 북침핵전쟁도발사동으로도 모자라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해치려는 천미보수역적대파당을 이 땅에서 영

영 쓸어버려야 한다. 오직 복수의 불벼락으로 온갖 악의 분거지인 미국본토와 청와대를 비롯한 대결모략의 소굴들을 흔적도 없이 짓밟아버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천벌을 받아 마땅한 악귀들에게 차폐질것은 무자비한 징벌뿐이다. **로능적위군 대원 주성권**

가 장 큰 죄 악

남조선의 군부장대들이 평양을 비롯한 공화국의 대도시들에 정중히 모신 민족의 최고존엄인 수령영생, 수령청송의 기념비들을 미싸일로 정밀타격할 계획을 짜놓았으니 정말 이가 갈리고 복수의 일념이 끓어번진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은 천만군민의 열화같은 흠모와 순결한 충정의 결정체인 선군조선의 국보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언제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가장 정중히 모시고 우러르며 영원한 태양의 모습에서 무한대한 힘과 용기를 받아안고있다. 피뢰군부장대들이 선군조선의 국보를 감히 어찌보

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 세계 진보적인류의 심장에 칼질을 해대는 통지처럼 반인륜적대역죄가 아닐수 없다. 최악중에 이보다 더 큰 죄악은 없다.

우리의 뉘, 우리 마을의 기둥에 칼질을 해대겠다는 남조선군부장대무리들을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지금 온 나라 인민들이 분노를 터뜨리고있다. 《더이상 악당질을 못하게, 더는 못된것을 하지 못하게 원수놈들에게 한사바베 무자비한 선제타격을 가하라!》, 《쌍이요쌍인, 뱀히고뺨힌 분노와 한을 우리의 미싸일과 핵탄두에 장전하여 원수들을 씨도 없이 제

가루로 만들어버려라!》...

하늘이 무서운줄 모르고 망풍을 부리는 불한당들에게 복수의 불벼락을 안기지 않고서는 가슴에 사린 한이 풀릴것 같지 않다. 이젠 더이상 참을래야 참을수 없다.

우리의 생명이고 미래인 최고존엄이 여지없이 침해당하는 협박한 현실을 절대로 묵과할수 없다. 원수들이 울쩍하기만 하면 우리가 핵무기와 전략로케트를 비롯한 위력한 타격수단을 총동원하여 원수들이 살아서 숨도 쉴수 없게 멸적의 불벼락을 들씌워야 한다. **평양시 만경대구역 장훈2동 47인민반 리영희**

특대형도발자들은 무자비한 징벌을 받을것이다

남조선호전세력의 동족대결광풍이 극한점을 넘어서었다.

극우보수언론의 대변자인 《조선일보》가 전한데 의하면 남조선군부장대들은 평양을 비롯한 공화국의 최고존엄의 상징인 수령영생, 수령청송의 기념비들을 미싸일로 정밀타격할 계획을 짜놓았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새 《정부》의 고위관계자들까지도 군부가 《동상을 공격대, 지대미싸일로 타격하는 방안을 마련한것으로 안다.》고 실외하였다.

민족의 피가 거꾸로 솟게 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특대형도발행위가 아닐수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의 해방과 민족의 번영,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가장 정중히 모시고 우러르며 영원한 태양의 모습에서 무한대한 힘과 용기를 받아안고있다.

하기에 세계 수많은 나라 사람들

과 남조선 각계층은 물론 적대국가의 인사들도 평양을 방문하면 만수대언덕에 모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동상부터 찾아 숭고한 경의를 삼가드리고있는것이다.

천만군민의 열화같은 흠모와 순결한 충정의 결정체인 선군조선의 국보를 감히 어찌보려는것은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 우리 겨레와 진보적인류의 심장에 칼질을 해대는 것과 같은 통지처럼 반인륜적대역죄이다.

민족의 최고존엄을 해치려는 피뢰장대들의 특대형도발행위는 비단 이번이 처음아니다.

지난 시기 남조선의 룩, 해, 공군부대들에서 잇달아 발생한 《인공비료》사건, 남조선군병영들과 초소들, 군사시설물들에 쏘버리거나 내다진 최고존엄을 헐뜯는 《구조, 현수막》사건, 사격장들과 훈련장들에서 벌어진 《최고존엄표적사격》행위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해치기 위한 대규모적인 군사작전계획까지 짜놓고 미싸일을 비롯한 타격수단들까지 동원하여 전면적인 특대형도발에 나선것은 일찌기 없었다.

천벌을 받아 금사할 군부악당들의 이번 대결망풍은 청와대안방에서 질게 풍겨나오는 독기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것이 여론의 평가이다.

현 남조선보수당국이 집권전부터 《대북유화정책》의 미명하에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 공약을 내 놓았다는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위선과 자기기만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은 이번의 특대형도발행위를 통해서도 날날이 알수있다.

북남대결에서도 가장 악질적이고 용서 못할 대결죄악이 바로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중상무독하는 행위이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 리명박역도를 그토록 증오하고 민족의 이름으로 준엄한 사형선고를 내린것도 최고존엄을 감히 중

상무독한 처벌려는 죄악을 저질렀기때문이다. 남조선의 현 당국자가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모한도발계획을 목인조장하고있는것은 리명박역적대당의 동족대결정책을 그대로 답습했다는것을 드러내 놓은것이다. 그것은 선임자의 수치스러운 과멸의 전철을 되풀이하고있다.

북침핵전쟁도발사동으로도 성치않아 무모하게도 민족의 최고존엄을 해치려는 천미보수역적대파당을 모조리 불도가니에 쓸어넣으려는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멸적의 기상은 용암처럼 끓어번지고있다.

공화국은 이미 천명헌바와 같이 온갖 악의 분거지인 청와대를 비롯한 대결모략의 소굴들을 무자비한 군사적행동으로 흔적도 없이 쓸어버릴것이다.

하늘무서운줄 모르고 미쳐날뛰는 천하역적무리들은 공화국의 무자비한 징벌의 세레앞에 다시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게 될것이다.

김현일

선군조선의 서리밭치는 경고

한 인민군대의 모든 야전포병군단들이 1호전투군부대에 진입하여 최후결전의 시각을 기다리고있다. 원수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으로, 총을 내대면 대포로, 핵으로 위협하면 그보다 더 위력한 정밀핵타격수단으로 맞선다는것이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불변의 립장이며 백두산절세옹방식이다.

평화의 파괴자, 전쟁도발자들은 공화국의 정의의 타격을 피할 곳이 없다. 인민군대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망각하고 감히 움직이기만 한다면 남반부작전지대의 군사시설물들과 반동통치기관

들은 물론 미제의 반공화국 침략전쟁책동에 편승하는 추종국가의 관련시설들과 태평양작전지대의 미제침략군 군사기지들까지 모조리 초토화될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공화국의 인민군장병들은 단숨에 적진에 뛰어들어 분별없이 날뛰는 침략군부대들의 명줄을 끊어버리고 도발원점들을 이 땅, 이 하늘아래에서 흔적도 없이 죽탕쳐버리게 될것이다.

그것이 핵전략폭격기이든 핵잠수함이든 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의 초정밀명중타격의 파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얼마전에 진행된 대연평도, 백령도타격에 진입되는 열점지역 포병군부대의 실전능력판정을 위한 실관사격훈련은 침략의 아성들과 분거지들이 영웅적조선인민군의 강력한 보복타격으로 어떻게 불도가니가 되는가를 가슴후련하게 보여주고있다.

또한 전선동부와 동해안에 위치한 조선인민군 육군 대원급부대들, 조선인민군 해군 련합부대의 상륙 및 백두산혁명강군의 초정밀명중타격의 파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고 모조리 바다속에 처

널으려는 일당백포병들의 무자비한 타격력,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도발자, 침략자들은 말이나 총대로 답사겨야 한다.

미국의 대조선전대시정책에 동조하여 추주는 남조선의 현 피뢰당국자들에게도 공화국 군대의 초강경의지를 물리적으로 보여주게 될것이다.

첫 순간타격에 모든것이 날아나고 씨도 없이 재가루로 불타버리게 될 때 도발자들은 우리는 번말을 모른다. 공화국의 경고가 과연 무슨 말인가를 미처 깨닫기도 전에 비참한 개죽음을 당하게 될것이다. 김희일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 남, 해외본부 공동성명

지금 조선반도에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부당하게 조작한 권이온 유엔《제재결의》와 무분별한 북침전쟁연습사동을 당장 끊어치워야 한다. 미국은 핵무기가 더이상 저들의 독점물이 아니라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지금과 같이 교전방방이 핵을 가지고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인 군사적충돌에 의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이 터진다면 그것은 지난 세기 50년대의 전쟁같은 데미도 할수없는 핵전쟁으로 될것이며 대양건너에 있는 미국도 결코 무사할수 없다.

민족의 밝은 장래를 바라는 온 겨레는 한 사람같이 떨쳐일어나 조국강토를 황폐화시키고 민족의 머리위에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미국과 남측 군부호전세력의 무분별한 북침전쟁연습사동을 반대하여 총력기해나서야 할것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북에 대한 부당한 유엔 《제재결의》를 즉시 철회하여야 한다. 미국이 유엔을 도용하여 《제재결의》를 조작하고 그를 구실로 전쟁을 도발하던 강도적행위는 조선반도에서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우리 민족은 지난날의 약소민족이 아니며 땅은 핵위협에 굴복하여 치욕을 강요당한 나라들과는 다르다.

미국은 현실을 바로 보고 유엔을 도용한 《제재》들음에 대해 사죄하여야 한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조선전쟁형체결 60년이 되는 올해에 평화형체결을 위한 대중적운동을 보다 힘차게 벌려나가지. 범민련은 민족의 번영을 지속시키며 온갖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해온 전쟁의 근원인 외세를 이 땅에서 송두리채 들어내고 평화형체결을 주장하는 다양한 공동행동과 련대활동을 전민족적운동으로 강력히 전개해나가는것을 해내외의 온 겨레에게 열렬히 호소한다.

우리는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바라는 북과 남, 해외의 각 정당, 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이 범민련의 애국적호소에 적극적으로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려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한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련합 해외본부

2013년 3월 28일

섬을 지고 불길속에 뛰어드는 《독수리》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이 벌리는 북침전쟁연습이 고조를 이루고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은 공화국의 강력한 경고와 내외의 한결같은 반대규탄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1일부터 북침전쟁연습인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고있다. 한편 내외호전세력들은 《독수리》 합동군사연습기간중인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에 조선반도 《유사시》 미중원군의 신속한 전개와 남조선군과의 연합으로 전면적인 북침핵공격을 단행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는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을 벌려왔다.

미국은 핵탄을 적재할수 있는 《B-52》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을 비롯한 방대한 지상, 해상, 공중타격수단들을 투입하였다. 공화국의 평화적인 인공위성발사와 자위적인 지하핵시험을 걸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사상유례없는 반공화국 《제재》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는 속에 내외호전세력들이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과 같은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해나선것은 공화국에 대한 최악의 군사적도발이고 로골적인 침략위협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 의해 이 땅에서 전쟁의 도화선은 시시각각으로 타들어가고있다. 그러나 내외호전세력들의 극도로 이른 북침전쟁광기와 책동은 섬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어리석은 망동이다. 내외호전세력들의 무분별한 북침전쟁책동이 절정에 이른 현재는 공화국군에게서 전개되어있는 핵전략폭격기 《B-52》 편대를 남조선지역 상공에 불시에 들이밀어 공화국북반부의

중심대상물들을 가상한 목표들에 핵타격을 가하는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왔다. 이것도 성취하지 않아 28일에는 력사상 처음으로 스텔스전략폭격기 《B-2A》를 비롯한 전략타격수단들을 남조선지역 상공에 진입시켜 공화국을 겨냥한 지상목표타격훈련을 공공연히 벌리는 도발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 의해 이 땅에서 전쟁의 도화선은 시시각각으로 타들어가고있다. 그러나 내외호전세력들의 극도로 이른 북침전쟁광기와 책동은 섬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어리석은 망동이다. 내외호전세력들의 무분별한 북침전쟁책동이 절정에 이른 현재는 공화국군에게서 전개되어있는 핵전략폭격기 《B-52》 편대를 남조선지역 상공에 불시에 들이밀어 공화국북반부의

섬멸의 용암은 분화구를 찾고있다

지금 남조선의 반통일보수세력은 공화국의 초강경대응의지에 대해 《체제결속속》이니, 《의도적인 연출》이니 하는 악담들을 꿰뚫고 있다. 그런가하면 어중이떠중이 인간쓰레기들을 내세워 그 무슨 《공포리즘》이니, 《고립자조》니 하며 공화국의 최고존엄과 체제까지 악랄하게 걸고드는 망발도 서슴지 않고있다.

《정권》문제를 갈아탄지 한달이 되도록 온갖 부정부패와 추문으로 《정부》구성도 제대로 못하고 민심의 배격으로 지지율이 땅바닥에 떨어져 초상집신세가 된 현 피외정권들거지들이 감히 그 누구의 《체제불안》에 대해 떠벌이는것이 자꾸만 양천대소할 일이다.

공화국의 천만군민과 정밀핵타격수단들을 포함한 모든 공격수단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최후공격전의 진지를 차지하였다. 모든 타격수단이 이미 격동상태에 있으며 발사되면 불바다가 되게 되어 있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이미 선포함대로 온갖 악의 본거지, 대결모략의 소굴들을 무자비한 불벼락으로 훈적도 없이 짓개버릴 것이다. 공화국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무덤하게 걸고들며 경거망동하는자들은 그가 누구든 첫째가는 처단대상으로 단호한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한 내외호전세력들의 전쟁대결광풍이 극히 무모한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 22일 남조선의 합동참모본부의 장 정승조와 《한미연합군사령관 서언》은 《북의 국지도발》시 공중으로 대응한다는 《공중국지도발대비계획》에 정식 서명하였다. 이 계획에는 수십개의 《도발》 유형에 따른 대응 방안과 함께 《적도발시 도발원점은 물론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응징한다.》는 모험적인 전쟁도발계획도 담겨져있다.

이 전제연습에는 수십만의 남조선군과 함께 남조선주둔 미군과 해외의 미군병력은 물론 미국의 추종국가 군대들까지 참가하였다. 그런가하면 북침전쟁연습은 물론 소규모적인 《국지전》에도 미군의 각종 무력이 동원되는것을 내용으로 한 《공중국지도발대비계획》은 자그마한 무력충돌의 불씨로도 전면전쟁을 불러올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북침전쟁도발문서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 의해 이 땅에서 전쟁의 도화선은 시시각각으로 타들어가고있다. 그러나 내외호전세력들의 극도로 이른 북침전쟁광기와 책동은 섬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어리석은 망동이다. 내외호전세력들의 무분별한 북침전쟁책동이 절정에 이른 현재는 공화국군에게서 전개되어있는 핵전략폭격기 《B-52》 편대를 남조선지역 상공에 불시에 들이밀어 공화국북반부의

중심대상물들을 가상한 목표들에 핵타격을 가하는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왔다. 이것도 성취하지 않아 28일에는 력사상 처음으로 스텔스전략폭격기 《B-2A》를 비롯한 전략타격수단들을 남조선지역 상공에 진입시켜 공화국을 겨냥한 지상목표타격훈련을 공공연히 벌리는 도발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 의해 이 땅에서 전쟁의 도화선은 시시각각으로 타들어가고있다. 그러나 내외호전세력들의 극도로 이른 북침전쟁광기와 책동은 섬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어리석은 망동이다. 내외호전세력들의 무분별한 북침전쟁책동이 절정에 이른 현재는 공화국군에게서 전개되어있는 핵전략폭격기 《B-52》 편대를 남조선지역 상공에 불시에 들이밀어 공화국북반부의



침략자무리들을 일격에 쳐부실 만단의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있는 로동적위군 대원들

자멸의 함정을 판 도발자들의 서명놀음

남조선에서 《천안》호사건 3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반공화국대결소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졌다. 《천안》호사건 3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반공화국대결소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졌다. 《천안》호사건 3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반공화국대결소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졌다. 《천안》호사건 3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반공화국대결소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졌다.

《천안》호사건 3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반공화국대결소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졌다. 《천안》호사건 3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반공화국대결소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졌다. 《천안》호사건 3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반공화국대결소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졌다.

《천안》호사건 3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반공화국대결소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졌다. 《천안》호사건 3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반공화국대결소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졌다. 《천안》호사건 3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반공화국대결소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졌다.

《천안》호사건 3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반공화국대결소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졌다. 《천안》호사건 3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반공화국대결소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졌다. 《천안》호사건 3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반공화국대결소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졌다.

《천안》호사건 3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반공화국대결소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졌다. 《천안》호사건 3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반공화국대결소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졌다. 《천안》호사건 3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반공화국대결소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졌다.

《천안》호사건 3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반공화국대결소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졌다. 《천안》호사건 3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반공화국대결소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졌다. 《천안》호사건 3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반공화국대결소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졌다.

《천안》호사건 3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반공화국대결소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졌다. 《천안》호사건 3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반공화국대결소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졌다. 《천안》호사건 3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반공화국대결소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졌다.

《천안》호사건 3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반공화국대결소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졌다. 《천안》호사건 3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반공화국대결소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졌다. 《천안》호사건 3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반공화국대결소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졌다.

《제일 한국민주통일련합》의장 손헌경, 《제일 한국청년동맹》 위원장 문세현, 《제일 한국민주녀성회》 회장 김지영이 15일 일본주재 미국대사관앞에서 조

남조선정세를 긴장시키는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의 중지를 요구하여 항의행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남조선 전지역에서 광란적으로 감행되고있는 미제와 남조선피괴군의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북의 《정권붕괴》를 목표로 하는 《작전계획 5027》에 따른 대규모의 침략전쟁연습이라고 규탄하였다.

남조선정세를 긴장시키는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의 중지를 요구하여 항의행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남조선 전지역에서 광란적으로 감행되고있는 미제와 남조선피괴군의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북의 《정권붕괴》를 목표로 하는 《작전계획 5027》에 따른 대규모의 침략전쟁연습이라고 규탄하였다.

남조선정세를 긴장시키는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의 중지를 요구하여 항의행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남조선 전지역에서 광란적으로 감행되고있는 미제와 남조선피괴군의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북의 《정권붕괴》를 목표로 하는 《작전계획 5027》에 따른 대규모의 침략전쟁연습이라고 규탄하였다.

남조선정세를 긴장시키는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의 중지를 요구하여 항의행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남조선 전지역에서 광란적으로 감행되고있는 미제와 남조선피괴군의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북의 《정권붕괴》를 목표로 하는 《작전계획 5027》에 따른 대규모의 침략전쟁연습이라고 규탄하였다.

남조선정세를 긴장시키는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의 중지를 요구하여 항의행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남조선 전지역에서 광란적으로 감행되고있는 미제와 남조선피괴군의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북의 《정권붕괴》를 목표로 하는 《작전계획 5027》에 따른 대규모의 침략전쟁연습이라고 규탄하였다.

남조선정세를 긴장시키는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의 중지를 요구하여 항의행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남조선 전지역에서 광란적으로 감행되고있는 미제와 남조선피괴군의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북의 《정권붕괴》를 목표로 하는 《작전계획 5027》에 따른 대규모의 침략전쟁연습이라고 규탄하였다.

남조선정세를 긴장시키는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의 중지를 요구하여 항의행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남조선 전지역에서 광란적으로 감행되고있는 미제와 남조선피괴군의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북의 《정권붕괴》를 목표로 하는 《작전계획 5027》에 따른 대규모의 침략전쟁연습이라고 규탄하였다.

재미동포단체들 반전투쟁 전개. 재미동포전국연합회와 국제행동센터 성원들이 19일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미국과 남조선군호전세력들의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여 집회를 가졌다.

재미동포단체들 반전투쟁 전개. 재미동포전국연합회와 국제행동센터 성원들이 19일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미국과 남조선군호전세력들의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여 집회를 가졌다.

재미동포단체들 반전투쟁 전개. 재미동포전국연합회와 국제행동센터 성원들이 19일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미국과 남조선군호전세력들의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여 집회를 가졌다.

재미동포단체들 반전투쟁 전개. 재미동포전국연합회와 국제행동센터 성원들이 19일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미국과 남조선군호전세력들의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여 집회를 가졌다.

재미동포단체들 반전투쟁 전개. 재미동포전국연합회와 국제행동센터 성원들이 19일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미국과 남조선군호전세력들의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여 집회를 가졌다.

재미동포단체들 반전투쟁 전개. 재미동포전국연합회와 국제행동센터 성원들이 19일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미국과 남조선군호전세력들의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여 집회를 가졌다.

재미동포단체들 반전투쟁 전개. 재미동포전국연합회와 국제행동센터 성원들이 19일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미국과 남조선군호전세력들의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여 집회를 가졌다.

재미동포단체들 반전투쟁 전개. 재미동포전국연합회와 국제행동센터 성원들이 19일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미국과 남조선군호전세력들의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여 집회를 가졌다.



새 전쟁의 불을 지르려는 무력증강책동

최근 남조선강점 미군무력이 증강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미국무력증강책동은 북의 《정권붕괴》를 목표로 하는 《작전계획 5027》에 따른 대규모의 침략전쟁연습이라고 규탄하였다.

최근 남조선강점 미군무력이 증강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미국무력증강책동은 북의 《정권붕괴》를 목표로 하는 《작전계획 5027》에 따른 대규모의 침략전쟁연습이라고 규탄하였다.

최근 남조선강점 미군무력이 증강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미국무력증강책동은 북의 《정권붕괴》를 목표로 하는 《작전계획 5027》에 따른 대규모의 침략전쟁연습이라고 규탄하였다.

최근 남조선강점 미군무력이 증강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미국무력증강책동은 북의 《정권붕괴》를 목표로 하는 《작전계획 5027》에 따른 대규모의 침략전쟁연습이라고 규탄하였다.

피의 제주도 는 오늘도 웨친다

남조선에서 제주도 4.3인민봉기가 있는 때로부터 65년이 되어온다.

4.3인민봉기는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배속화정책과 민족분열책동에 반대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정의의 반미반파쇼인민항쟁이었다.

1948년 정초부터 미국과 그 주구 리승만도당의 매국적인 《5.10방국단독선거》를 반대하여 출거차게 벌어진 제주도인민들의 투쟁은 마침내 영웅적인 4.3인민봉기로 확대발전되었다.

봉기에 일떠선 인민들은 파쇼도당의 야수적인 탄압에 대처하여 자위적인 무장조직을 결성후후 노대의 폭압기관들을 습격파괴하고 그 우두머리들을 처형하였으며 《단독선거》당일에는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 도처에서 강력한 투쟁을 벌였다.

《단독선거》분쇄하라! 《미군은 즉시 철거하라!》, 《미제의 주구를 타도하라》, 《조선통일 만세!》 등의 구호말에 벌어진 투쟁에는 전체 도민 30만 명중 24만명이 남녀로소를

막론하고 적극 참가하였다. 이에 질겁한 미국은 수많은 무력을 동원하여 제주도인민들의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해나갔다.

《제주도당이 필요하지 제주도민은 필요치 않다. 제주도민을 다 죽이더라도 제주도를 확보해야 한다.》, 《전 섬에 휘발유를 퍼붓고 모두 죽여도 좋다.》, 《가능한 빨리, 깨끗이 해치우라.》는 살인지령이 하달되고 제주도가 완전봉쇄된 가운데 수많은 미군과 1500여명의 경찰, 3000여명의 중무장한 《국방경비대》, 수천명의 무장대로단, 비행기 등이 《도벌작전》에 투입되어 합포사격과 폭격 등 전쟁을 방불케 하는 살육전을 벌렸다.

미국과 리승만도당의 야수적인 살육만행으로 제주도민 4분에 1에 해당하는 7만여명이 무참히 학살되었으며 도내 부락의 절반이상이나 되는 295개의 부락에 불을 지르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하여 제주도는 말그대로 《피의 섬》으로 변하였다. 제주도인민들의 투쟁은 미

국과 리승만도당의 야수적인 탄압만행으로 비록 실체하였으나 미국의 식민지통치와 민족분열책동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불의와 매를 부리면서 반공화국계승 소동을 계단식으로 확대해고있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으나 자주적이고 통일된 땅에서 온 겨레가 함께 행복하게 살던 항쟁용사들과 녀민들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1960년 4.19인민봉기와 1979년 10월민주항쟁 등 남조선인민들의 반미반파쇼투쟁을 총칼로 탄압하였다.

새 생활, 새 제도를 갈망하는 광주민들의 투쟁을 야수적으로 진압하고 광주를 피의 도시로 만든 살인귀들도 바로 미국이다.

오늘 미국은 지난 세계제도인민들에게 강요한것보다 더한 핵재난을 전체조선민족에게 들씌우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다. 미국은 공화국의 평화적

위성발사와 자위적핵역제력 강화조치를 견고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들을 조차해낸데 이어 북침핵전쟁도발책동에 기승을 부리며서 반공화국계승 소동을 계단식으로 확대해고있다.

얼마전에도 미국은 《B-52》전략폭격기와 핵동력잠수함, 스텔스전략폭격기 《B-2A》를 남조선지역 상공과 해상수역에 투입하여 공화국을 파괴하려는 실동 핵타격훈련을 빼없이 벌여왔다. 이것은 이 땅에서 기어이 핵전쟁의 불을 지르려는 미국의 범죄적기도를 만천하에 폭로하는것이다.

인디언의 피바다우에 나라를 세운 미국의 침략적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하기에 온 겨레가 미국의 전쟁광기에 치자는 분노를 터뜨리고있다.

남조선에서도 미국의 위협천만만 북침핵전쟁도발책동과 반공화국계승정적들을 반대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이 날로 고조되고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미

국의 핵확포함기지로 전변되는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각계층 인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미반전 투쟁이 매일과 같이 벌어지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배정책, 대조선전대시정책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조국통일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실지 체험을 통해 깨닫고 침략자들의 전횡을 더는 용납치 않으려는 남조선인민들의 확고한 의지의 분출이다.

피의 제주도는 오늘도 웨치고있다. 우리 조국의 절반 땅에서 침략자, 강점자들을 하루빨리 몰아내야 한다고.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의 무모한 대결과 전쟁책동을 짓부서버리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전민항쟁, 정의의 통일애국정전에 총력기해나섬으로써 삼천리조국강산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고야 말것이다.

라현숙

남조선의 현 《정권》은 김관진뿐 아니라 군부출신인 김장수, 남재준 등에게 청와대 안보실장, 정보원 원장의 갈무를 씌워주고 이들로 그 무슨 《외교안보팀》이라는 것을 꾸려 북남대결을 로골적으로 추진하고있다.

청와대 안보실장 김장수나 정보원 원장 남재준 역시 김관진에 못지 않게 군사광대적기질을 지닌 호전광들로서 청와대의 치마자락에 감기기 바쁘게 자기의 기질을 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남조선의 현 《정권》이 김관진과 같은 극악한 호전광, 악질군사광대들로 《외교안보팀》이라는것을 꾸려 동족대결의 일선에 내세운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남조선내부에 만연되고있는 《안보》불안을 수습하고 공화국과 끝까지 맞서보자는데 있다.

리명박 《정권》과 다름없이 끝까지 동족대결의 길로 나가겠다는것이며 민족의 평화와 통일지향에 었서 한사코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피겠다는것이다.

남조선의 현 《정권》은 사태를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불을 즐기는자 불에 타죽기마련이다. 리명박이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된것은 김관진과 같은 대결광자, 친미사대분자들을 끼고 동족대결에 미쳐달려 었기때문이다.

리명박 《정권》의 종말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공화국의 첫해가는 별초대상인 군사광대들을 끼고들다가는 정벌의 불벼락만이 차레질것이다.

《웅정》이니 뭐니 하며 물뎡뎡듬뎡듬 헤뎡뎡는 불망나니들때문에 청와대를 비롯한 대결도박의 소굴들이 재가꾸 로 될 때는 후회할 기회도 없다.

김정혁

군사광대들을 끼고들다가는 ...

죄는 지은데로 가기 마련이다

못해 해로 도 괴뢰하러던 원세훈에게 출구금지령을 내렸다. 이것으로 하여 리명박 《정권》기간 나라와 민족 앞에 온갖 죄를 지은 남조선의 전 정보원 원장 원세훈이

오도가지도 못하고 손에 족쇄를 차지 않으면 안될 신세에 놓이게 되었다.

민족반역자, 가장 비렬한 음모군에 내려지는 웅당한 대징이다.

원세훈으로 말하면 리명박이 2002년 서울시장때부터 가장 가까운 심복종대로, 리명박 《정권》출범후 첫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쳐 모락과 음모의 총본산인 정보원 원장자리에 올라앉은자이다.

이런자가 권력의 자리에 틀고앉아 저지른 죄는 실로 엄청나다.

그가 행정안전부 장관시절에 미국산 미친소고기수입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조분사위투쟁을 어쩔대 야수적으로 탄압하도록 하였는가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 그는 《배후사실이 있다.》는 리명박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초벌집회는 100%불법》, 《경찰의 법집행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았다.》느니 하며 시위군중들, 지어 유모차들까지 물대포를 쏘아대는 등 경찰을 살인적인 진압으로 내몰았다.

정보원 원장의 자리에 올라앉은 다음에는 《지방자치선거》와 《천안》호침불사건이 터진것과 매를 같이하여 《북간첩단사건》등 수많은 모략사건들을 조작해왔으며 합선침몰사건을 《북의 소행》으로 물

아가면서 일도당도않은 여론을 내뜨리고 남조선지역에서 반공화국적분위기를 고취하였다.

심지어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해서는 《리적단체》로, 통일애국인사들에게는 《간첩》의 딱지를 붙인 극악한 동족대결광이 원세훈이다. 얼마전에는 《종북세력》란 압과 여론조작을 지시한 내부문건이 폭로되어 커다란 사회적물파까지 일으켰다.

그런데도 원세훈은 지나온 죄악에 대하여 반성할대신 지난 21일 퇴임사에서 《리명박 (정부)의 국정성과를 뒤받침했다는 기쁨과 자부심》이니 뭐니 하며 자기의 죄악을 합리화하려고 하였다. 이것만 보아도 원세훈이 리명박과 조금도 짝지 않는 천하의 물도 없는 역적이니 틀림없다.

죄는 지은데로 가고 민심의 버림을 받은 매국노는 처벌을 받기마련이다.

집권기간 온갖 악행만을 저지른 리명박과 마찬가지로 원세훈이나 지금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갈수록 이할 가련한 운명에 처하여 갔다.

반공화국모략소동으로 북남대결을 고취해온 죄악, 남조선의 민주와 인권, 정의를 란도질한 죄악의 대가를 이제 원세훈은 특특히 치르게 될것이다.

리명진

미국의 핵공격잠수함은 당장 떠나라 부산민중련대 항의투쟁 전개

남조선의 부산민중련대가 미제침략군의 핵공격잠수함의 부산입항을 반대하여 21일 긴급항의투쟁을 벌였다.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일관인 연합해상기동훈련에 돌아치던 미7함대소속 핵추진잠수함 《사이언》호가 정박하였는 부산의 괴뢰해군작전사령부기지앞에 모여든 투쟁참가자들은 《미 핵공격잠수함은 당장 떠나라!》라는 구호를 웨치며 기세를 올렸다.

그들은 우리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바라는 부산시민들이다,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조성된 이때 핵잠수함의 입항이 웬말인가. 미국은 끝끝내 남의 땅에서 핵전쟁을 일으키려는것인가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질겁한 괴뢰들이 황급히 돌아치며 무장인원들을 출동시키고 위협을 가하였으나 투쟁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들은 기지밖으로 나온 《사이언》호소속 미제침략군 무리들을 에워싸고 분노를 터쳤다.

4시간동안 항의투쟁을 벌리던 투쟁참가자들은 그 자리에서 집회를 가지였다.

복은 이미 미국의 핵잠수함이 있는곳을 타격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하면서 《사이언》호가 누구를 위해, 누구의 승인을 받고 부산에 들어 왔는가고 규탄하였다.

미핵공격잠수함이 부산에 들어와있는 이상 이 자리를 떠날수 없다고 하면서 그들은 미군을 쫓아낼 때까지 무기한 비상행동을 벌려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본사기자

최근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북침전쟁연습소동으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지난 21일 남조선의 연평도에서 해병부대의 실수로 마을방송이 잘못 나가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11시 45분경 연평도 곳곳에 설치된 방송에서 《실제상황입니다.》라는 군인목소리 가 흘러나오자 방송을 듣고 놀란 연평면사무소 직원 10여명은 긴급히 무전기를 준비해 각각 맡은 담당대피소로 달려갔고 그사이 집에서 점심준비를 하던 주민 수백여명도 뛰쳐나와 몸을 낮춘채 대피소를 향해 뛰여 갔다고 한다. 전쟁이 벌어 진줄 알고 려객선을 타고 도착으로 달려간 주민도 일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불과 몇분뒤 해병부대에서 《잘못 나간 방송 울라 우리들 표시하였다.》는 연락이 왔고 혼비백산했던 면사무소 직원들과 주민들은 비로소 놀란 가슴을 슬어내리며 안도의 숨



를 쉬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실수로 인한 소동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상황이었다면 어쩔만 하였는가.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도발로 이 땅에서 바라지 않는 전쟁이 다시 일어난단다 북침전초기지로 화학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개 섬은 인민군대의 불벼락에 의해서 단순한 실수로 인한 소동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상황이었다면 어쩔만 하였는가.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도발로 이 땅에서 바라지 않는 전쟁이 다시 일어난단다 북침전초기지로 화학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개 섬은 인민군대의 불벼락에 의해서 단순한 실수로 인한 소동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상황이었다면 어쩔만 하였는가.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도발로 이 땅에서 바라지 않는 전쟁이 다시 일어난단다 북침전초기지로 화학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개 섬은 인민군대의 불벼락에 의해서 단순한 실수로 인한 소동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상황이었다면 어쩔만 하였는가.

《실제상황입니다》

최근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북침전쟁연습소동으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지난 21일 남조선의 연평도에서 해병부대의 실수로 마을방송이 잘못 나가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11시 45분경 연평도 곳곳에 설치된 방송에서 《실제상황입니다.》라는 군인목소리 가 흘러나오자 방송을 듣고 놀란 연평면사무소 직원 10여명은 긴급히 무전기를 준비해 각각 맡은 담당대피소로 달려갔고 그사이 집에서 점심준비를 하던 주민 수백여명도 뛰쳐나와 몸을 낮춘채 대피소를 향해 뛰여 갔다고 한다. 전쟁이 벌어 진줄 알고 려객선을 타고 도착으로 달려간 주민도 일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불과 몇분뒤 해병부대에서 《잘못 나간 방송 울라 우리들 표시하였다.》는 연락이 왔고 혼비백산했던 면사무소 직원들과 주민들은 비로소 놀란 가슴을 슬어내리며 안도의 숨을 쉬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실수로 인한 소동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상황이었다면 어쩔만 하였는가.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의 도발로 이 땅에서 바라지 않는 전쟁이 다시 일어난단다 북침전초기지로 화학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개 섬은 인민군대의 불벼락에 의해서 단순한 실수로 인한 소동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상황이었다면 어쩔만 하였는가.

《핵우산》이 아니라 핵버섯구름

최근 미국은 《북의 핵위협》이니 뭐니 하며 남조선에 《핵우산》을 포함한 모든 침략무력을 제공해줄것이라고 요란스럽게 떠들어 대고있다. 그에 따라 미국은 《B-52》전략폭격기와 핵동력잠수함, 스텔스전략폭격기 《B-2A》를 동원하여 공화국을 겨냥한 실동 핵타격훈련들을 로골적으로 감행하면서 핵위협이 도수를 더욱 높이고있다.

미국이 떠드는 《핵우산》이라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우리 민족을 핵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기 위한 핵버섯구름이다.

력대로 미국은 조선반도에 함시적인 핵전쟁위협을 조성하여왔다.

2010년 10월 미국의 AP통신이 비밀해제된 미류군문서를 입수하여 공개한바에 의하면 미국은 1950년 8월 중순에 핵무기를 남조선에 처음으로 배치하였다. 지난 조선전쟁때 미국이 원자탄광대로 수많은 사람들을 납적으로 끌고가 가족, 친척들이 생겨서부조차 모르며 갈라져 살게 한 민족의 대비국을 초래한데 대해 우리 겨레는 오늘날도 투특히 기하고있다.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날강도적인 핵공갈책동은 지난

60여년동안 어느 하루도 중단없이 지속되어왔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키 리졸브》에 이어 남조선과 그 주변해역에 핵탄을 적재한 살인타격수단들까지 투입하면서 벌리고있는 《독수리》합동군사연습 역시 가장 위협천만한 반공화국 핵전쟁도발소동이다.

핵탄을 적재한 전략폭격비행대와 핵동력잠수함들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함께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공갈수단으로 제마음대로 휘두르고있는 《3대핵기둥》 - 《3대핵력각수단》틀다.

이미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구실로 조선반도수역에 핵미사일을 실은 미국의 핵잠수함들이 돌아치고있으며 전략핵폭격기들까지 동원되어 실동훈련을 벌리고있다. 그 동안 지금까지 조선반도에는 핵전쟁도발의 위협이 극도에 달하고있다.

미국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핵타격수단들까지 동원하여 핵전쟁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는것은 이 땅에 기어이 열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우리 민족에게 핵재난을 들씌우려는 가장 치명리는 범죄행위가 아닐수 없다.

미국이 안중에는 남조선인

민들의 생명재산이라는것이 리골만치도 없다. 오직 자국의 이익, 전조선반도와 세계에 대한 지배야욕밖에 없다. 남조선을 강점하고 한 차례의 참혹한 전쟁을 우리 민족에게 강요하고도 모자라 남조선에서 지난 반세기이상 살인, 강간, 강도 등 온갖 치명리는 범죄행위들을 밤낮로 저질러온 미군, 지어 길가는 나어런 두 녀중학생들까지 백수여 강간차로 끌아죽인 미군이 남조선인민들의 생명안전을 생각할리 만무하다.

결국 미국의 핵무기는 남조선인민들의 《보호》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핵재난을 불러오는 침략과 전쟁의 도구라는데것이 명백해졌다.

그 제년의 핵무기를 믿고 자기들의 머리우에서 핵폭탄을 가득 실은 핵전력폭격기들이 마구 돌아치는것을 변히 보면서도 가만히 있는다면 그처럼 어리석은짓은 없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미국의 《핵우산》제공이 《7천만 민족을 죽음에 몰아넣으려는 사기극》이라고 하면서 호전광들의 북침 핵전쟁책동을 강력히 단죄규탄하고있다.

본사기자 최현주

핵위협의 잠본민은 미국 (3)

사건들을 통해 본 핵위협소동

지난 시기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저지른 각종 군사적도발 사건들은 이후 해이될수 없다. 그때마다 미국은 오히려 도적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 호사건

1968년 1월 23일, 조선평해에 불법침입한 미국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조선인민군 해군함정에 의해 나포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은 공화국의 명해에서 불법무도한 정탐행위를 벌린 침략자들이 받은 웅당한 대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푸에블로》호가 《공해상》에서 나포되었다고 억지를 쓰면서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왔다.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EC-121》 대형간첩비행기사건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 호사건으로 미국이 항복서에 도장을 찍은 후 불과 몇달만인 1969년 4월에 미군의 《EC-121》 대형간첩비행기가 공화국 명공에 침입하였다가 격추당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였다.

이때에도 미국은 《푸에블로》 호사건때와 마찬가지로

이 때를 드는 격으로 《군사적보복조치》를 요란히 떠들면서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소동을 광란적으로 벌여왔다.

이 때를 드는 격으로 《군사적보복조치》를 요란히 떠들면서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소동을 광란적으로 벌여왔다.

이 때를 드는 격으로 《군사적보복조치》를 요란히 떠들면서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소동을 광란적으로 벌여왔다.

이 때를 드는 격으로 《군사적보복조치》를 요란히 떠들면서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소동을 광란적으로 벌여왔다.

이 때를 드는 격으로 《군사적보복조치》를 요란히 떠들면서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소동을 광란적으로 벌여왔다.

이 때를 드는 격으로 《군사적보복조치》를 요란히 떠들면서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소동을 광란적으로 벌여왔다.

이 때를 드는 격으로 《군사적보복조치》를 요란히 떠들면서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소동을 광란적으로 벌여왔다.

핵위협소동

용을 공언한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핵무기를 탑재한 전술폭격기들을 비상대기시키고 핵추진항공모함과 미사일순양함을 조선해로 끌어들이었다.

그때 전라북도 군산미공군기지에서 전투기조종사로 근무하였던 미군비행사 찰스 후남 조선반도 《유사시》 북의 공군기지에 핵공습을 하 하는것이 자기의 임무였으며 자기가 조종하던 전투기 《F-4》에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보다 파괴력이 20배나 강한 《B-61》 핵폭탄이 탑재되어있었다고 실로 하였다.

이 핵전쟁계획은 미국이 월남전쟁의 수렁에 빠져 2차 조선전쟁을 치를수 없다는 판단으로 실행해 옮겨지지 않았지만 이후 닉슨행정부는 류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에 대비하여 25개의 비상계획을 작성하였다. 그중 《자유락하》라는 작전명으로 된 계획은 조선에 핵무기를 사 용한다는 계획이었다.

관문점사건 역시 미국이 조선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려고 계획중인 소작한 도발사건이었다.

1976년 8월 미국은 관문점사건이 일어나자 북측에서 먼저 도끼를 들고나와 도발을 일으킨것처럼 외공하에 크게 떠들었다. 하지만 문체의 그 도끼가 오스트랄리아제이고 미군부대에서 작업중인 사실과 사실관행 닉슨이 《미드웨이》호를 4척모함 리제트함의 호위밑에 조선수역으로 급파하도록 하였

었다.

그런데도 미국은 사건이 터지자 《최고위급안보그룹회의》를 열어 벌려놓고 그 무슨 군사행동과 《보복조치》에 대해 떠들었다. 《독수리》 북침전쟁연습을 련달리 벌리면서 핵전력폭격기 《B-52》 편대까지 끌어들이어 공화국을 핵타격하는 위협천만한 연습까지 벌리고있다.

사실들은 조선에서 기어이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미국의 침략적본성을 명백히 드러내 보이이고있다.

본사기자 김련옥

다. 때를 같이하여 미국본토와 일본 오끼나와에서 핵을 탑재할수 있는 최신형전투폭격기를 비롯한 수많은 비행기편대들이 남조선으로 날아들었으며 일본주둔 미공군도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방대한 무력을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집결시킨 미국은 전투태세를 갖춘 무력을 비법적으로 판문점공동경비구역안에 투입하여 나무뚝이 《작전》을 벌렸다. 군사불한당들이 나무뚝기를 하는 동안 직승기 26대와 판도로부러 남조선으로 긴급출동한 3대의 《B-52》 전략폭격기 등이 현장상황을 비행하면서 위협소동을 벌였다.

이 사건은 수많은 전쟁장비들을 조선반도에 끌어다 놓고 핵전쟁도발의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려온 미국의 책동이 얼마나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는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준 실례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미국은 남조선호전광들과 함께 《독수리》 북침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핵전력폭격기 《B-52》 편대까지 끌어들이어 공화국을 핵타격하는 위협천만한 연습까지 벌리고있다.

사실들은 조선에서 기어이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미국의 침략적본성을 명백히 드러내 보이이고있다.

본사기자 김련옥